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말 출시”

문 대통령, 바이오산업 행사서 “K바이오 새 역사” “미·유럽 시장 뚫었다...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K바이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에

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산업은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많은 국가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육성전략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4만7,000여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

성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돕겠다”며 “메가펀드를 활용해 지원을 늘리고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을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신중 국가가 바이오 강국이 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철용성 같던 바이오시장을 뚫

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로 예상됐지만 이제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40개 기업이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9,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생산공장 기공식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향해 “세계 의약품 위탁생산 1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고, 연구센터 기공식을 하는 셀트리온에도 “세계적 바이오 혁신 의약품 개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 모습.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장 후보 안 내면 개정안 상정”

여,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동시 임명 요구 일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 다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시한은 오늘까지다”며 “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모 방송에서 야당이 공수처 후보 추천의 조건

으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GTX가 나왔는데 전차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고위공직자를 감시할) 공수처라는 좋은 게 나왔는데 굳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더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꼭 오늘까지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엄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조건을 두고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때 같이 하면 된다”며 “하나의 조건이 해소되면 다른 조건을 붙이는 도돌이표식 조건 붙이기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성 가점’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여성 가점’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당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18일 모 방송에서 “여성 가산점은 주로 여성신인 가산점이라는 점에 방점이 있었다”며 “어지간한 남성후보들보다 더 유명한 여성한테도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있었던 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보선 준비에 참여하는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여성 가점에 부정적으로 임할 수 있어 당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유력 여성 정치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한층 미묘하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치열

하게 진행되면 불과 몇%의 가점이 당락에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경선을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내 주된 인식은 여성 정치 확대 차원에서 마련한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성 가점에 대해 “정해진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 보궐선거기획단의 다른 관계자도 “가산·감산 관련한 규칙을 이번 재보선에 굳이 달리 적용할 상황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 가산’을 받는다.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소통 사각지대 메워달라” 이낙연 대표, 특보단 가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정책, 정무적 자문역할을 담당할 특별보좌단(특보단)이 18일 출범했다.

특보단은 당헌상 당 대표가 설치할 수 있는 자문기구지만, 이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대권행보와 연결 짓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보단이 자문 역할뿐 아니라 정치적 지지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관측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 등 24명을 특보단에 임명했다.

단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설훈(5선)·박완주·전혜숙(이상 3선)·김철민·김한정·서삼석·송갑석·유동수(이상 재선)·강준현·김주영·박영순·신영대·이원택·이상삼·이형석(이상 초선) 등 현역의원 16명이 특보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박성현 부산 동래구 위원장, 윤준호 부산 해운대를 위원장, 심규명 울산 남구갑 위원장, 문상모 경남 거제시 위원장, 조기석 전 대구시당 위원장, 이정근 서울 서초갑 위원장 등 열세지역의 지역위원장이 주로 참여했다.

청년 몫으로 선정된 경기도 의원이 포



제주 방문한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제주시 첨단로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 센터를 방문해 원희룡 제주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했다. 심기준 전 의원도 함께한다.

권역별·세대별·직능별 대표 인사들을 안배했다는 것이 특보단의 설명이다.

이 대표가 취임 후 주요 당직 인사으로

“이낙연계”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특보단이 외연확대 역할을 자연스럽게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가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라며 “그것을 찾아 메워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 차단”

정부 “2주간 모임·약속 자제” 요청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유행 양상이 전국으로 확산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도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하며 대

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선 시점”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통상 열흘에서 2주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노력해야 전국적인 대유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주 뒤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정돼 있으므로 더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어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관련, “이번 상황조정 목표는 본격화하는 지역사회 유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고 환자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2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반드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F : (062)525-3832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

M : 010-3647-3832
E : jwc3832@nate.com